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정부 '지속가능발전위' 구성...환경정책 진일보

불교는 땅 물 불 바람 등 모든 생명현상을 인간의 주관과 소유적 판단에 근거해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환경사상'을 밝혀왔다. 물론 개발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범망경>의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보면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지난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강댐(영월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선언했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여기에 난(亂)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준농림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친화적 기업을 적극 우대하기로 한 것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3년여 동안 지루한 논쟁을 야기시

킨 동강댐 건설 백지화나 환경친화적 기업 육성은 자연친화적인 발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사회단체들이 설치를 촉구해왔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약속은 환경정책의 진일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속가능발전'이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것은 <범망경>에 나오는 "사람은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키지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도 안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자연'이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사상이 깃들여 있다. 이처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처님 말씀은 <범구경> <범망경> <니전자경> <유마경> <화엄경> 등 대부분 경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연기(緣起)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환경보호는 취약하기만 하다.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한달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한 주요상수원의 수질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06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염색공장, 폐유리공장, 건축회사 외에 병원, 호텔, 양식장 등이 포함돼 있어 업종들 가

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수질환경오염사범은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948건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일상환경에서의 환경경시 풍조나 소각장과 같은 환경시설들에 대한 지역이주주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다행히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최근현대환경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설문 대상자인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620명 중 '개발보다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75.2%였고, '다소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79.4%로 높게 나타났다.

불교는 '허공에 맺은 침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친다. 환경을 해치는 것도 바로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침은 허공에 머무르지 않고 맺은 얼굴에 떨어지기 마련이며,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면 도리어 자기가 뒤집어쓰게 되는 이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매향리서 인간띠 잇기 100여개 시민단체와 주민 3000여명은 6일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군 폭격 연습장인 '쿠니시격장'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이고 사격장 폐쇄, 환경피괴 전면조사, 주민 피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요구했다.

남편 출세도 좋지만... 내조 과외까지

교육문화회관 장애인 행사 대관거부

"너무했다"

한국교원총연합 산하 교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장애인영화 시사회 행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영화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채티비(chatv)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리브 리키'의 개봉을 앞두고 교육문화회관에 극장 대관 신청을 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채티비 관계자는 당초 "좋은 취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교육문화회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지 하루만에 "회관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행사는 싫어한다"며 거

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문화회관은 극장장이 "장애인 시설도 없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장로 비구가 위중한 병을 얻어 한 절에 누워 있었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손수 그의 몸을 씻어 주며 말씀하셨다.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공양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영화 시사회에 초청된 장애인들은 신체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신지체아들이라고 한다. 이 사회 모두가 교원공제회 같다면 장애인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교원공제회는 마땅히 장애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한 사설교육기관이 소위 '잘 나가는' 남편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남편을 더욱 출세시키는 '내조법 강좌'를 열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강좌는 사회교육기관인 MBO전력연구소 부설 성공교육원이 다음달 4일부터 열기로 한 것으로, 이 강좌에는 인맥형성과 유지방법, 정보 수집 및 관리방법, 대중연설원고 작성법과 제스처 취하는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자격도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기업 부장 이상의 부인들만 가능하며, 최근에는 국회의원 부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나간 사람들의 행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매사에 출세수

범해야 할 상류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학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니 도대체 무엇이 사람 사는 바쁜 도리인지, 더욱이 이 강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늘 본받아야 한다."

'효인 남편' 부인들에게 수강문의에 앞서 <중일아함경> 읽기를 권한다.

8천겁 인연인데... 젊은 부부 협의이혼 급증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과거세에 맺은 8천겁 인연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의 전통은 부부의 인연을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 깊은 인연을 단지 몇 몇 마디로 쉽게 끊어버리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1995년 7만 여건에 이르던 협의이혼 건수가

지난해에는 12만 여건으로 5년새 5만 건이 증가했으며, 올 4월까지만도 4만 쌍 이상이 협의이혼으로 헤어졌다.

주로 20~30대 부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협의이혼'은 까다롭고 복잡한 재판이혼과는 달리 부부가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 이혼 의사만 확인하면 몇 분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는 부부들도 없다고 하니, 이들에게 이혼은 그저 조건이 맞지 않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체의학 의사 자격증
대체의학(침구, 기공)강시모집
라이베리아 보건복지부

라이베리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체의학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들을 연수시킬 스님 또는 법사를 제주도 경성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에서 모집함

- * 침술을 할 수 있는 자
- * 기공을 할 수 있는 자
- * 약초 치료를 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사진
▶ 제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Republic of Liberia 1000 Monrovia 10, Liberia TEL 231-226317 Deputy Minister John Fania
▶ 임시전화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2 (영프라자 빌딩 705호)
▶ 문의전화: 주야간 (0417)583-9179 주 간 (0344)970-6980

관세음보살님께 전수받은
딱 엮제

수십년간 작품을 모시고 영험을 본 기적!!

나의 작품을 모시고 계수가 있고 취적이 되고 입시등 시험 합격 가정이 화합하고 투쟁시비가 없고 부부간이나 가족이 마음이 안정해짐

수십년간 많은 영험과 기적은 수련한나의특정위신의 기적인것이다.

나의 친필 작품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영험과 기적은 모를것이다

▶ 입금계좌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춘길

▶ 신천기관중 보금가
· 함북만안신 천필 13만원
· 법화경 수광동 천필 20만원 10쪽
· 佛宇나 기타 액자 천필 3만원

연락처: 0591) 746-7350 017) 552-7350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철단 의학의 특성을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법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제1권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예세이! 골리지도 말고 풀려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예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이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남산 스님 지음/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각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시론 불평등한 SOFA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1967년부터 발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수사권 조차 없는 한국경찰

그런데 이 협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제한, 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제약, 관세해택,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책임등이다. 특히 미군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문제는 미군 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군 관할지역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이 구금하며, 한국에서 복역중인 미군 범죄자를 미당국이 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한국측은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호의적 고려'라는 표현은 법적 기준으로는 막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주관적으로 운운하거나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아 전미군 범죄자 중 3.5%에 그쳤다는 건 우리 법상식으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본이나 나토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우에는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경우 1960년 '일·미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 6조에 의거하여 미군피의자를 기소한 후에는 일본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전에도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야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은 '주둔군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은 형사사건의 주둔군 관할은 물론, 출입국 관리, 과세 및 관세 면제 및 민사관할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상호주의적 원칙을 준수한 평등 조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

민단체들은 이 외에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약 9천만평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환산한다면 12조원에 이른다는 건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파 개정 요구 움직임에 대한 미군의 견해는 "소파협정은 지금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상단계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또 협상이 재개 되더라도 의제를 형사재판관할 문제에 국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미온적 태도로 일관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정부는 국민감정 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어서 일단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노근리, 매향리 사건과 더불어 소파문제가 반미감정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매우 조바심하는 태도이다. 정부는 '개혁 100대 과제' 안에 들어있는 SOFA개 정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 미국측도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